

格調派의 詩論

車 相 轅*

I. 序

Ⅰ. 用語의 意義

Ⅱ. 格調說과 七子

Ⅳ. 格調說과 申涵光 毛先舒

Ⅴ. 格調說과 沈德潛

I. 序

中國 詩史學上에서 格調說은 詩의 形式을 偏重하는 詩論으로 中國 保守派의 支持를 받는 學說이다. 元來 中國人의 大部分의 學者나 詩人은 儒敎思想에 感染되어 尙古主義로 흐르는 傾向이 濃厚하여 이러한 詩說은 中國詩壇에서 相當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中國詩史上에서 이 詩派가 強調하는 學者를 추려 그들의 學說을 檢討하는 것이 本論文의 趣向이다. 反面 格調說에 反對하여 詩의 內容을 主張하는 袁枚의 性靈說이 있고 다시 禪學의 影響을 받아 古淡을 主張하는 王士禎의 神韻說이 있고 이것을 修正할라 하는 翁方綱의 肌理說도 擡頭하여 各派間에 論爭이 熾烈하였으나 이러한 學說은 紙面關係上 다음 機會로 미루기로 한다.

Ⅱ. 用語의 意義

中國詩史에서 格調 性靈이라는 詩派가 나타난 것은 明代 弘治 正德부터 清代 康熙 乾隆 嘉慶에 걸친 時期이다. 그리고 이러한 詩說 詩派는 中國本人 뿐만 아니라 我國 日本에 까지 傳播되어 今日에도 그 消長の 자취가 뚜렷하다. 이 兩說은 中國 詩派中에 重要な 地位를 차지하였으므로 그의 發生 以來 今日에 이르기까지 이에 關한 議論이 不少하였다.

格調는 本是 格과 調의 二項이다. 格이라는 것은 普通用語로서 骨格 體格의 格으로 骨格은 뼈가 組立되어 一定한 形體로 이루는 것이고 體格은 既成의 形體이다. 詩에 있어서 若干의 文字를 모아 一句를 作成하는 以上 그 文學의 組立 如何에 따라 이에 句格이 생긴다. 다시 句를 組立하여 一篇을 作成하는 以上 이에 篇格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作成된 詩篇은 個人과 時期에 따라 그 格이 不同할 것이고 다시 一定한 時代에 限하여 볼 적에 그 時代에 共通한 詩格이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敎授(文博), 中國文學

있을 것이다. 漢魏의 格 齊梁의 格이라면 漢魏 齊梁 時代에 지어진 詩篇을 뜻한 것이고 盛唐 晚唐의 格이라면 唐代 어느 時期에 있어서 어떠한 共通된 詩篇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陶淵明의 格 李白・杜甫의 格 白居易의 格이라면 個人에 對한 詩格인 것이다.

格의 樣式에서 이것을 外面에서 보면 字音 字數이고 內容에서 보면 詩意이다. 그러므로 格과는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 後世 字音 字數가 一定하여져서 이 規則에 따르는 것을 律詩라하고 그 規則에 따르지 않는 것을 格詩(一名古詩)라고 한다. 調는 音調이다. 文字로 句가 組立될 적에 一句의 音調가 있을 것이고 句로서 篇이 組立될 적에 一篇의 音調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格과 調는 本是 二事이나 一定한 詩格에는 一定한 音調가 隨伴되어 二者는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이다. 漢魏의 格에는 漢魏의 調가 있고 唐宋의 格에는 唐宋의 調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不可離의 關係가 있으므로 格과 調를 連稱하여 「格調」라 하니 이것은 格調의 普通意義인 것이다. 그런데 格調를 標榜하여 特別한 意義로 使用하는 者에 이르러서는 漠然하게 格調를 말한 것은 아니다. 上述한 普通意義에 따르면 詩가 있는 곳에 格調가 있을 것이다. 그 格이 아무리 粗雜하고 그 調가 아무리 卑鄙하여도 적어도 詩라면 그詩에 格과 調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標榜者의 所謂 格調는 이러한 뜻은 아니다. 數千年間 特別 詩人 特別 時代에 對하여 標準할만한 格調를 말한 것이다. 中國詩史에서 漢魏와 盛唐이 가장 標榜할 만한 格調라는 것이니 이것은 格調의 特別意義인 것이다.

Ⅲ. 格調說과 七子⁽¹⁾

格調派의 詩論은 明代 前後七子에서 展開된다. 七子の 領袖인 李夢陽과 何景明이 이 派의 代表라 하겠다. 明史 文苑傳에서 夢陽의 詩論을 論하여 :

「夢陽才思雄鷲，卓然以復古自命。弘治時，宰相李東陽主文柄，天下翕然宗之。夢陽獨譏其萎弱，倡言文必秦，詩必盛唐，非是弗道。」라고 비로소 「文必秦漢」「詩必盛唐」을 標榜，詩에서 盛唐의 格調를 본 받을 것을 提倡한 것이다. 그리고 同傳에서 다시 그 詩文을 評하여 :

「華州王維楨以爲七言律自杜甫以後，善用頓挫倒插之法，惟夢陽一人，而後譏夢陽詩文者，則謂其模擬剽竊，得史遷少陵之似而失其眞云。」이라 한 것은 夢陽의 詩文을 要約批評한 것이다. 李夢陽이 「文箴」에서 :

「古之文以行，今之文以葩，葩爲詞腴，行爲道華。」라 한 것은 비록 復古이나 道學家的 論調이다. 그리고 空同子論學 上篇에서 : 「西京之前，作者勿論矣。」라 한 것은 「文必秦漢」의 뜻이다. 그 외 그의 作品중에 秦漢을 模擬한 자취를 엿볼 수 있으나 「文必秦漢」以外에 아무 새로운 것은

(1) 七子: 明代 保守派 七文人으로 前七子는 李夢陽 何景明 徐禎卿 邊貢 康海 王九思 王廷相이고 後七子는 李攀龍 王世貞 謝榛 梁有譽 宗臣 徐中行 吳國倫이다.